

# ‘따상’에 ‘동학개미’까지...올해 떠오른 주식 용어들

### 동학개미운동 이끈 존봉준, 서학개미도 SK바이오팜에 ‘따상’ 바람...“성투하세요” 주린이·주생아, 물리고 줍줍...‘부적주’도

올 한해 대한민국에 주식 열풍이 강타했다. 계속된 저금리에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찾아 초보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무수한 신조어가 양산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다. 하지만 이내 반등하더니 연말까지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IPO(기업공개) 시장에는 지난 10년 내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몰렸다. SK바이오팜이 쏟아진 공모주 열풍에 줄줄이 역대급 경쟁률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호황 속에서 떠오른 주식 신조어, 어떤 것이 있을까?

#### ◇국내 증시 살린 ‘동학개미운동’... 그 지도자 ‘존봉준’

올해 가장 주목받은 신조어는 단연 ‘동학개미운동’이다. 지난 3월 국내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외국 투

자들이 국내 증시장을 떠났다. 마침 저금리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 외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코스피는 반등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이들 외세에 맞서 나라를 구한 동학 농민운동에 빗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미는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흔히 일컫는 말이다.

당시 개인들의 금융문맹 퇴치를 목표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유튜브 등 각종 SNS채널 방송과 전국 순회강연을 이어갔다. “커피 대신 펀드”, “차를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등의 주장에 열광한 개미들이 그를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존봉준 장군의 이름을 따서 ‘존봉준’이라 불렀다.

‘동학개미’ 이모티콘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에서 자사의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동학개미를 표현한 ‘김개민’ 이모티콘을 주

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출시 직후 두 번이나 물량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학개미’도 등장...주린이들 ‘성투하세요’

올해 국내는 물론 미국 증권시장도 활황세를 보였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에도 눈을 돌려 애플이나 테슬라 등 단기간 크게 오른 종목들을 사들였다. 이들을 동학개미에 반하는 개념으로 ‘서학개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처럼 밤낮으로 국내외 주식에 몰두하는 동학·서학개미들이 늘어나자 ‘성투(성공투자)’란 말도 유행했다. 서로 안부를 전하며 “성투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식이다.

주식 공부 열풍도 불었다. 투자 서적이나 유튜브·팟캐스트 등을 들으며 공부하는 초보투자자들이 자신이 ‘주린이(주식 어린이)’나 ‘주생아(주식 신생아)’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린이 투자일기’ 등을 공유했다.

종목계사판에는 기초적인 주식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빅히트 주가가 상승과 동시에 하락하자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방시혁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주린이들의 성

토와 질문이 화제가 됐다.

◇SK바이오팜에서 시작된 ‘따상’, ‘따상상’ 바람

올해 유독 관심이 집중됐던 분야 중 하나는 공모주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일반 청약에서 코스피 역대급 청약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상장 후 높은 수익률을 거두자 IPO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 7~9월(3분기) 공모주에 청약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상한가를 찍어도 이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쩍삼’이란



말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은 첫날 이를 유지한 것은 물론 3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다. 이에 ‘따상’, ‘따상상(2일 연속 상한가)’, ‘따상상상(3일 연속 상한가)’ 등이 공모주 시장에서 널리 쓰였다.

이후 역대 최고 증거금이 걸린 카카오게임즈, 글로벌 아티스트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등이 연달아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따상’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다. 따상에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공모가의 160%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바이오주 등락에 물리고 줍줍, ‘부적주’까지 등장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코로나19 세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코로나19 세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 가계대출 금리 계속 오른다...1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1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2.72%, 0.08%포인트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제로금리 기조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2.72%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금리는 지난 5월(2.81%)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았고 오름폭은 지난해 9월(0.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건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정부 규제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영향이다. 은행들은 금리인상, 한도 축소 등을 통해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는 2.56%로 0.09%포인트 뛰어올랐다. 지난 4월(2.58%)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집담대출(0.11%포인트), 보증대출(0.15%포인트) 금리 등도 줄줄이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하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3.01%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비대면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2.4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2.86%로 0.05%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0%대로 떨어진 예금금리는 0.90%로 두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5%)

는 0.03%포인트, 순수저축예금 금리(0.89%)는 0.02%포인트 올랐다.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02%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적금 금리는 1.16%로 제자리걸음했다.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1%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02%포인트로 0.01%포인트 벌어졌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달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05%로 전월대비 0.13%포인트 하락했고 새마을금고 금리도 3.84%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3.89%), 상호금융(3.37%)의 대출금리는 0.06%포인트, 0.02%포인트씩 올라갔다.

김미희기자

## 삼성생명 등 11사,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

#### 현대·우리카드는 종합등급 ‘우수’ 평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은행, 증권사들이 금융 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대거 ‘미흡’ 등급을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은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

금감원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등 10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급으로 분류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11사는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증권 등이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압보협금 미지급 관련으로 종합등급이 내려갔고,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실태평가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와 금융사 소비자보호 혁신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

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평가 일정 지연과 점검반 확대, 점검시기 조정 등 탄력적 운영으로 평가가 마무리됐다.

종합등급에서는 전체 71개사 중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양호’ 24개사(33.8%), ‘보통’ 34사(47.9%), ‘미흡’ 11사(15.5%)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16개 은행 중 ‘양호’ 3사, ‘보통’ 8사, ‘미흡’ 5사 등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5개사는 종합등급 1등급을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했다”며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8개 생명보험사는 ‘양호’ 5사, ‘보통’ 11사, ‘미흡’ 2사였다. 자율조정성립률이 감소한 탓에 매트라이프, 오렌지 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BL생명 등

4개사가 민원처리노력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영향이다.

11개 손보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6사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업권보다 소비자보호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카드사의 경우 전체 업권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가 나왔다. 현대카드, 우리카드는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종합등급 ‘우수’ 등급 받았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 업권 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최고경영자(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10개 증권사는 대부분 전년 대비 등급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3사, ‘보통’ 3사, ‘미흡’ 4사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낮은 자율조정성립률을 보인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등 3개사는 민원처리노력 부문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기동취재본부

## 공차코리아, 새해에도 배달 할인 연속

#### 1월1일부터 배달 할인 프로모션 전개



공차코리아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힘찬 2021년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1월1일부터 배달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새해 첫날부터 배달의민족

에서 요일 할인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매주 금요일 배달의민족 앱 내 상단 배너 클릭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2000원 할인 쿠폰을 다운받고,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에서 또 하나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배민 브랜드관 할인 프로모션으로 매주 토요일에 1만원 이상 주문 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 내 브랜드관에서 공차 배너 클릭 후 공차 브랜드관에 진입해 할인 쿠폰을 다운받고 최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쿠폰은 프로모션 당일마다 1인 1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에서 진행되는 두 프로

모션 모두 공차 주요 메뉴 등 배달 가능한 제품에 할인이 적용되며 배달의민족 내 입점된 전국 400개 이상 공차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요기요 앱 회원에 대상으로 슈퍼레드위크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요기요 앱에서 횡수 제한 없이 1만원 이상 주문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요기요 앱 내 ‘슈퍼레드위크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며 주문 및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할인 횡수는 무제한이며, 최소 주문 금액은 매장별로 상이하다.

쿠팡이츠 할인도 진행된다. 1월 25일부터 쿠팡이츠 회원에 대상으로 1만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이 할인된다. 쿠팡이츠 앱 내 상단 배너 클릭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으면 선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신봉우기자